마더와이즈 소감문

2025년 4월 24일 전병선

영아촌 예배 때 마더와이즈 지혜가 개강한다는 광고를 듣게되었다.

쉼 없이 자유와 회복을 들었기에 몇 회 쉬고 지혜를 수강하려고 했으나, 지혜 신청자가 적다는 이야기가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머릿수를 채울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당연히 은혜롭겠거니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이 변화될 만큼의 큰 은혜를 받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과 자녀들을 향한 나의 언행과 마음가짐이 많이 변화되었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올려야겠다는 마음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받는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

특히 나에게 고난과 시험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이 찾아오곤 한다.

그럴때마다 나는 남편과 각자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찾아온 정보들을 나열하며 나은 것을 선택했지만 이제는 남편과 각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 성경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결정하게 되었다.

첫째가 학기중이고 막내는 너무 어리기때문에 예전같았으면 생각도 안했을 특새를 다섯식구 모두가 완주하였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삶을 살겠다는 변화의 기념비적인 시작이었다.

지혜를 통해 어머니의 참 역할을 알게되었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와 회개를 알려주고, 아이들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알려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시작이었다.

지혜 본문 중 특히 더 머리와 마음을 요동치게하던 문장이다.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생명까지 기꺼이 내려놓겠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한동안 묵상하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정의 대답을 기꺼이 하는 내가 되길 소망하게 되었다. 예전의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녀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이 아닌, ‘자녀들의 삶을 각자의 소망대로 이루어가도록..’이라고 기도하던 엄마였음을 회개했다. 또한 진심으로 회개하면 세상적인 엄마였던 나를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실거라 믿으며 소원했다.

자녀들의 삶에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주시길, 엄마로서 누리는 축복을 당연한 것이 아닌 매 순간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내가 되길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리라 결단하였다.

나는 예수님이 돌보시고 보호해주시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마더와이즈 지혜의 시간동안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축복의 은혜가 넘쳐 남편과 아이들에게 온유함이 흘러가길 기대해본다.

아이들과 남편, 우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을 비춰주시길..

매주 알맞은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리고, 다양한 헌신으로 마더와이즈를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4조 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 이 모든걸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올립니다.

아멘